

## 《金海金氏 先賢史料集成》 발간에 부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조 수로왕(首露王)께서 금관가야를 세운 뒤로 신라에는 흥무왕(興武王)을 비롯한 여러 선조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고려에 들어서도 김해 김씨들이 높은 관직에 등용되어 상신(相臣)과 장군, 제학(提學)과 명신(名臣)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 중엽 이후 후손들은 본관(本貫)은 그대로 두고, 각기 현달한 선조를 중조(中祖)로 삼아 파(派)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고려말의 충신들은 절의를 지켜 조선조에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은거하여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보냈는데, 그 중 김해 김씨계의 인물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조선 초기에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인하여 탁영(濯纓) 선생을 비롯한 여러 선조께서 참화를 당하시고, 일부는 산간 벽지나 외딴 섬으로 피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후로는 더욱 명철보신(明哲保身)하며 세상을 잊고 아예 환로(宦路)에 진출할 염두조차 내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국조방목(國朝榜目)》에는 김해 김씨가 125위나 수록되어 있고, 임진왜란 때 창의(倡義)여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여러 무장(武將)들도 많았습니다.

이 책은 세종대에 부사를 역임하신 효분(孝芬) 공을 위시하여 현종대의 재관(在權) 공에 이르기까지 49위(位)의 김해 김씨의 행적을 당대 사관(史官)의 직필(直筆)로 엄정하게 기록한 우리 민족의 보고(寶庫), 《조선왕조실록》에서 초록·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여러 족보나 가승(家乘) 및 이번에 함께 발간되는 화보와 같이 활용하면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7년 10월 10일

73代孫 相 丸 삼가쓰다